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31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9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100일..200일.. 보내지 못한 열사

열사를 보내지 못한 200일

3월 17일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노조파괴에 맞서 6년간을 싸우면서 쌓이고 쌓였던 울분과 분노가 터져나왔다. 죽음의 원인은 당연히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성기업과 그 배후 현대차였다. 우리는 유성기업과 현대차를 상대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10월 2일이면 어느새 200일이다. 우리는 아직도 열사를 차디찬 냉동고에 모시고 있다.

열사의 한을 푸는 길은 노조파괴 끝장내는 것

2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유성기업과 현대차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최소한의 사과와 화해의 제스처도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유성기업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 현대차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쏟아져도 현대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유성지회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노숙농성, 유족 단식농성, 전국순회투쟁 등 안해본 투쟁이 없다. 단식농성이 길

어지자 유족의 건강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직접적인 원인이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노조파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노조파괴를 중단하는 것이다.

냉동고 속에서 겨울까지 지낼 순 없다

열사의 시신을 200일이 넘도록 냉동고에 모시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 차가운 냉동고 속에서 겨울까지 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노조파괴가 여전히 눈 앞에서 자행되는 유성기업의 상황에서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다. 곧 유시영 대표이사의 재판이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갑을오 토텍처럼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례를 또 보게 될 수도 있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가 갑을오토텍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것은 없다. 법원의 철퇴를 맞고나서야 정신차리면 너무 늦다.

지회 설립 6개월, 아직도 임단협..

미르텍코리아지회 임단협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다. 올해 3월 14일에 지회 설립 후 임단협을 시작했는데 6개월이 넘었다. 단협 조항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있었는데도 마지막 남은 쟁점사항을 놓고 사측의 태도가 아주 불량하고 불성실하다. 미르텍코리아 사장은 아직도 노조를 없애고 싶어하는 눈치다.

임단협 중간에 사측은 계속해서 지회를 도발했다. 임금을 체불하는가 하면 그동안 멀쩡히 지급하던 수당을 못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지회는 6월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측은 번번이 뒤통수를 쳤다. 결국 지회는 지난주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미르텍코리아 사장은 선택해야 한다. 노조와 함께 갈 것인지, 끝까지 노조를 없애려다 큰 낭패를 볼 것인지.

* 이번주 일정 *

■ 민주노총 총파업

일시 : 9/28(수) 14:00
장소 : 서대전 시민공원 (대전)
청주 상당공원 (충북)

■ 열사 200일 투쟁

9/30(금) 14:00 천안터미널
19:00 유성 아산공장